

[논문]

**관광목적지로서 도시공간의 개발방향**  
**Developing Urban Space as a Tourist Destination**

이 영 주\*

**목 차**

- |                      |                        |
|----------------------|------------------------|
| I. 서론                | IV. 관광목적지로서 도시의 공간적 성격 |
| II. 도시 관광의 공간경제적 중요성 | V. 관광목적지로서 도시공간의 개발방향  |
| III. 도시 관광의 요소       | VI. 요약 및 결론            |

**ABSTRACT**

**Lee, Young Joo**

Recently, the demand for urban tourism has grown, but its importance has been neglected and underestimated.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various issues about urban space as a tourist destination and to suggest the directions for developing urban space. According to the review of urban tourism researches,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tourism as a tourist destination compared with rural tourism are as follows : 1) Major industries are related to culture or art. 2) Urban tourism is symbolized by various images and symbols. 3) Urban space is the place for tourism consumption to both tourists and citizen. 4) Many tourist sites in the city make urban space so different.

Several factors that are important to develop urban space as a tourist destination are as follows : 1) Urban space as a tourist destination must be unique against the imitation among cities. 2) Developing urban space for urban tourists depends on an effective grouping of urban tourism elements. 3) Linkage among urban tourism elements that are grouped is also important. 4) City must be developed for citizen to satisfy the meaning 'welfare tourism'. 5) 'Sustainable urban tourism' which can satisfy not only the economic profits but also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should be considered in developing urban space.

키워드(Key Words): 도시 관광, 관광도시, 도시의 관광산업, 관광과 공간변형, 도시의 활성화, urban tourism, tourist city, urban tourism industry, tourism and spatial transformation, urban regeneration

---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정보연구센터 연구원

## I. 서론

도시는 인구가 집중하는 특정한 장소이며, 경제적인 활동으로 인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및 소비의 기회가 주어지는 장소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적·사회적 활동의 중심점이지만 그러면서도 각 개인들이 느끼는 도시환경에 대한 평가는 사뭇 다른 점이 있으며, 도시에 대한 그들의 활용은 도시가 그들에게 제공하는 기능과 관련해서 매우 개인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Page, 1995).

도시민은 지금껏 도시가 제공하는 삶의 '필요적' 기능에 관심을 두었다. 즉, 교통·주택 등과 같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영역들의 성장과 관리가 도시민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그러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양식이 변화하면서 도시민은 삶의 '필요적 영역' 이외의 영역에 대한 관심을 넓혀가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현상은 관광과 같이 개인의 시간적 여유를 좀 더 가치 있게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와 관련된다. 따라서 도시는 삶의 필요적 기능에 못지 않게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관광기능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관광'의 장소로 여겨져 왔던 공간은 도시보다는 지역에 치우쳐진 감이 있었으며<sup>1)</sup>, 따라서 도시가 지역보다 더 많은 관광객을

수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관광목적지로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왔다고 할 수 있다<sup>2)</sup>. 학문적으로 볼 때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시 관광' 연구는 도시 관광객에 대한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적 측면에서 촉발된 것으로서, 주로 각 도시가 어떻게 해서 관광을 진흥시켜왔는가의 정책적·사례적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사례적 측면에 비해서 도시 관광의 이론적·방법적 토대는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그 이유는 도시 관광 연구의 두 축인 관광학(tourism studies) 분야와 도시학(urban studies) 분야의 연계가 미흡한 까닭이다.<sup>3)</sup>

한편 국내에서도 도시 관광에 대한 연구가 90년대 말부터 있어왔는데, 역시 이론적 접근이기보다는 주로 정책적 접근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국제회의의 관광이벤트를 통한 도시 관광산업의 진흥방안(구연석, 2000)이라든가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도시국제관광 기반강화 전략(최승담, 2000),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연구(이종규, 2001)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도시의 관광기능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당위적 목표와 그에 따른 다양한 전략적 수단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도시의 관광 진흥을 위해 무엇이 중요한 요소인지, 관광기능에 의한 도시의 공간적 성격은 어떠한지, 관광목적지로서의 도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보다 원론적인

1) 본 연구에서 도시 관광과 대별되는 '지역 관광'은 주로 산, 바다, 계곡, 동굴 등 자연적 관광자원(natural resources)을 근간으로 하는 촌락관광을 의미한다.

2) Law(1993)는 이제까지 주요 대도시들이 관광객 이동의 원인으로 간주되면서도 목적지의 유형으로서는 경시되어왔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무관심은 대부분의 관심이 휴일 관광(holiday tourism)에 집중되어 왔기 때문으로 보았다.

3) Ashworth(1989)는 도시 관광 연구에 있어 2가지의 무관심을 지적하였다. 우선 관광학 분야에서는 관광을 도시적 상황에서 보는 것에 무관심하고, 도시연구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도시에서의 관광기능(tourist function)의 중요성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다. Page(1995)는 도시 관광의 초점이 도시 활성화(urban regeneration)에 고착되어 있어 더 이상의 도시 관광 규명 노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도시 내에서 관광기능과 비관광기능을 구별하는 것의 어려움 때문에 대부분의 관광학 연구자들이 도시적 상황에서 관광을 연구하는 것을 꺼린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부분은 간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관광목적지로서의 도시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도시 관광 개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법론적으로 기존 문헌들의 개념적 고찰을 바탕으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아직 도시 관광에 대한 주요 개념들이 각자 개별적으로 논의되고 있어 이를 총괄적이고 계통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 의의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시 관광 연구에 있어 하나의 '도시'를 단위로 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하기에는 관련 통계자료의 구득이 용이하지 않고<sup>4)</sup>, 자료의 신빙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의 시의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향후 관광연구와 도시연구의 활성화된 연계를 위한 도시 관광 연구의 기초 단계로서, 관광목적지로서의 도시에 대한 시론적인 연구임을 밝혀둔다.

## II. 도시 관광의 공간경제적 중요성

도시 관광객의 수요는 노동여건 개선에 따른 관광패턴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데, 더 짧아진 주중 근무와 좀더 유연해진 근무 스케줄이 도시에서의 관광 및 레저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도시 관광객의 증가는 도시 관광의 중요성에 대해 재고하게끔 만들고 있는데, 기존 문헌 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우선적으로 언급될 수 있는 그

중요성은 바로 관광산업에 의한 도시경제의 파급 효과에 있다고 할 수 있다. Page(1995)는 관광산업이 도시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비용과 편익으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도시 관광 산업의 경제적 비용으로는 하나의 경제활동에 대한 과도한 집중의 우려, 비용 인플레이션, 지가 상승, 생산·서비스·노동력의 수입체제 심화, 지역경제로부터 관광소비의 유출 등을 꼽았고, 경제적 편익으로는 도시경제의 소득 창출, 새로운 고용기회 마련, 경제활동의 구조 개선과 균형, 기업활동 장려 등을 꼽았다. Jansen-Verbeke & van de Wiel (1995)은 관광산업이 도시지역 경제에 미치는 또 다른 파급효과로서 관광 산업이 타산업과도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도시경제의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궁극적으로 도시경제에 파급효과를 가지는 관광산업은 도시를 경제적으로 재활성화(regeneration) 시켜주는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McNulty, 1985 : Owen, 1990 : Law, 1992). 이미 서구의 주요 도시들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경제적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관광산업을 그 수단으로 선호하고 있다.

도시 관광은 다양한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경제를 구성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공간적 이동을 유발하여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즉, 도시 관광은 도시의 공간적 재구조화(restructuring)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Green & Hunter(1992)는

4) 현재 국내외적으로 관광통계는 국가별 집계 이력이 있기 때문에, 국내의 관광통계 역시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통계」나 「외래방문객 실태조사」 등이 주축이 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강원도가 「강원관광통계연보」를 작성하는 수준에 있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지역적인 관광통계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현재 관광위성계정(Tourism Satellite Account: TSA)에 대한 작성이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이 도시에 미치는 물리적 영향을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째, 도시환경 변화(농업적 토지이용의 감소, 수문시스템의 변화 등), 둘째, 가시적 변화(건물<sup>5)</sup> 면적의 팽창, 새로운 건축 양식의 효과 등), 셋째, 기반시설의 변화(기반시설에 대한 이용과 개발의 과부하, 새로운 기반시설의 제공 등), 넷째, 도시내부 형태의 변화(거주지 토지이용의 상업적 변화, 보행자체계에서 교통관리체계로의 도시내부구조 변화, 관광적 토지이용과 거주지 토지이용의 질적 대조 등), 다섯째, 도시환경의 복원(인어 건물의 재이용, 역사적 건물 및 입지의 부활 및 보전 등)이 바로 그것이다.

관광기능에 의한 도시의 물리적 환경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기능을 담당하던 공간이 구조적으로 변모되는 경우이다. 즉, 전통적인 산업기능(예를 들어, 항만, 시장, 공장 등)이 도시화과정에서 그 기능들을 상실하게 되면서 쇠퇴적 공간으로 남아 있게 되는데, 도시계획가들은 재개발과정을 통해 이러한 불량지구들이 도시부흥의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대안적 형태를 모색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산업공간들은 도시의 신기능주의적 요소로 변모하게 된다. Hoyle et.(1988)는 도시의 산업화가 도시와 항만활동간에 상당한 기능적 분리를 가지고 오면서 항만활동을 확장시켰으나, 이러한 전통적인 수변지역과 항만들이 도시개발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불분명한 구조와 기능을 가진 도시지역으로 남게 되었고, 이에 도시의 공간구조를 재설

계하고 도시와의 기능적 통합을 재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므로 도시 관광에 의한 공간적 재구조화는 도시를 좀더 독특하고 흥미 있는 장소로 만들며, 훨씬 다양성이 공존하는 장소로 변화시킨다. 특히 도시를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관광객과 도시민이 많이 찾는 시내 주요 핵심부들이 그 구체적인 외모에 있어 뚜렷하게 변신함에 따라, 관광목적을 위한 도시의 매력성은 더욱 증가되고 있다.

한편 도시 관광의 중요성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은 도시 특유의 관광기능이 장소 판촉 전략의 주요한 도구가 된다는 점이다. 각 도시들은 그 영역에 내재한 장소적 자산들을 상품화시켜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때 강력한 마케팅 수단 중의 하나가 도시 관광기능이라 할 수 있다. 즉, 박물관·미술관·테마파크 등의 문화시설, 연극·오페라·발레 등의 공연예술, 회의와 전시산업, 월드컵·올림픽·영화제 등과 같은 이벤트 산업 등 주로 도시에 특화된 관광관련 영역자산들이 관광객과 관광관련 기업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한다. 로스앤젤레스시의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영화산업의 근원지이자 집적지라는 장소적 이미지와 함께 다양한 영화관련 자료의 참관을 위한 수많은 도시 관광객 및 영화관련 산업의 집적을 이끌고 있다. 또한 인디애나폴리스시는 'Indianapolis 500 자동차경주'로만 알려져 있다가 스포츠센터와 벨로드롬, 'Hoosier Dome' 등으로 연결되는 스포츠 관련 대공사를 통해 현재는 각종 스포츠대회가 개

5) 리조트 위주의 지역개발사업과 달리 대개의 도시 관광개발 사업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물계획의 일부가 되고 있다 (Law, 1993). 즉, 도시에서는 콘서트홀, 호텔, 전문쇼핑센터 등이 독자적으로 물리적 환경을 구축하고 있기보다는 사무실 공간의 중요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대한 고층 빌딩군의 일부이다. 따라서, 도시에서의 관광개발사업은 도시의 오피스공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게 된다.

최되는 도시로서, 연중 계속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를 구경하기 위한 관광객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그리고 미국내 스포츠관련 협회들도 상당수 입지해 있어 'Sport City USA'라 불리고 있다(Law, 1993). 이렇게 도시가 가진 영역자산들에 의해 축적되는 도시의 판촉 결과는 거꾸로 도시내 장소적 자산들에 관광객들이 집적되도록 만드는 순환적 구조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도시 관광의 중요성은 '세계도시'<sup>6)</sup>를 출현하게 하고 이를 보다 빠르게 촉매시키는 경제적 기반의 세계화 과정에 있어 도시의 관광기능이 중요한 구성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 있다(Shachar, 1995). 이러한 경제적 기반의 세계화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 관광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다국적 기업의 활동이라고 하겠다. 사실상 도시에는 제조업 본사나 금융·보험 등의 본사들에 견줄 만한 세계적인 호텔 체인<sup>7)</sup>이나 레스토랑 체인 등의 다국적 관광기업들이 입지하여 도시 관광객에게 질 높고 매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세계적인 관광목적지로서의 입지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경제적 기반의 도시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시경제적 기반에서의 관광부문의 기여 정도는 해당 도시의 중심성(Centrality)과 세계화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일찍이 중심지 이론의 창시자인 Walter Christaller도 인구규모나 금융, 교통 등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중심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했던 기준들 이외에 관광의 매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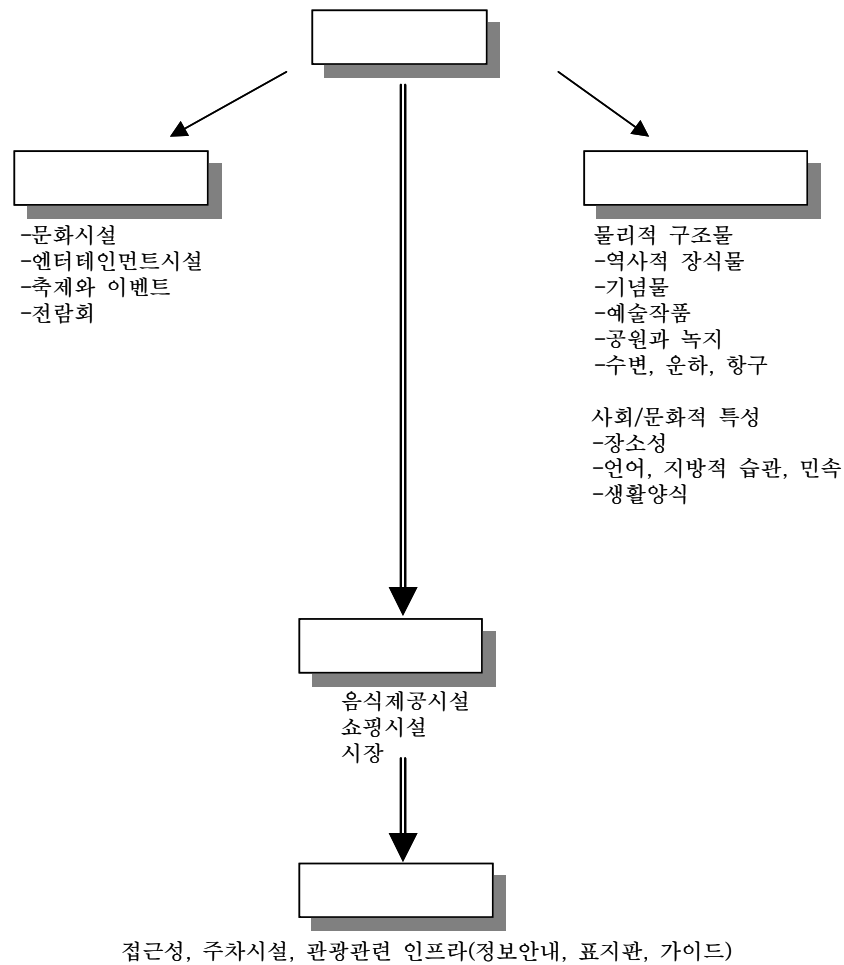
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도시와 지역 모두 관광객의 동기에 의한 원심력을 가지고 있어 매력도의 차이만큼 각기 다른 흡인력을 가진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흡인력이 관광기능에 의한 중심지체계의 주요 인자라고 보았다(Claval, 1995).

### III. 도시 관광의 요소

지금껏 도시 관광이 간과되어 왔던 것보다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만큼이나 도시 관광이 무엇인가를 헤아려보는 작업 또한 중요하다. 도시 관광의 요소들을 분류하는 것은 관광목적지로서의 도시에 대한 성격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명변수들을 찾기 위함이다. 몇몇 학자들에 의해 어디까지를 도시 관광으로 봐야 하는지가 제시되어 왔는데, 이는 크게 공급적 측면과 수요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급적 측면에서 도시 관광의 영역 구분은 도시가 관광객을 위해 어떤 관광자원과 시설들을 공급해야 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수요적 측면에서의 도시 관광의 영역 구분은 도시 관광객이 도시에서 어떤 관광활동을 원하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선 공급적 측면에서는 Jansen-Verbeke(1986)의 연구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도시환경 그 자체를 '여가 상품(leisure product)'으로 보면서 도시 내 관광요소를 3가지로 구분하였다(<그림 1> 참조). 1차적 요소는 활

6) Friedman(1986)에 따르면, 세계도시는 세계적인 관리체계의 결절지·범지구적 금융중심지·방문객의 주요 목적지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망을 형성하려는 도시군들을 의미한다. 서구세계의 많은 도시들은 복잡다단한 과정을 통해 소위 '세계도시'라는 지역의 재구조화 과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군들의 최상위층에는 뉴욕, 런던, 파리, 도쿄, 로스앤젤레스 등이 존재하고 있다.

7) 예를 들면, Bass Hotel Group(U.K), Marriott(USA) 등이 있다.



접근성, 주차시설, 관광관련 인프라(정보안내, 표지판, 가이드)

〈그림 1〉 Jansen-Verbeke의 도시 관광 요소 분류

동적 장소(activity place)와 여가적 구조물(leisure setting)로 다시 구분하였는데, 전자는 문화시설, 엔터테인먼트시설, 축제와 이벤트, 전람회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후자는 자연적·사회문화적 성격의 다양한 관광자원들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2차적 요소는 음식 제공이나 쇼핑 등의 편의시설을 포함하였으며, 마지막 조건적 요소에는 주차시설이나 관광관련 인프라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Shaw & Williams(1994)는 Jansen-Verbeke의 기본적인 체계에는 동의하면서도, 쇼핑시설 및 레스토랑

(Shop & Restaurant)이 단순히 편의시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관광매력물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파리시의 상제리제 거리에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많은 노천카페들은 단지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라기보다는 파리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상징화된 관광명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수요적 측면에서는 공급적 측면에서보다 훨씬 많은 언급이 이뤄졌다, 우선 Burtenshaw et.(1991)는 관광객이 이용하는 도시의 관광자원

역사적 기념물	박물관, 화랑	극장, 콘서트홀	야간 위락활동	카페, 레스토랑	쇼핑시설	사무실
역사도시(The historic city)						
문화도시(The culture city)						
야간 위락활동의 도시(The night-life city)						
				쇼핑도시(The shopping city)		
관광도시(The tourist city)						

〈그림 2〉 Burtenshaw et.의 도시 관광 요소 분류

에 따라 관광도시를 분류하였다(〈그림 2〉 참조). 관광도시는 도시 관광의 기능적 영역인 역사적 기념물, 박물관·화랑, 극장·콘서트홀, 야간 위락활동, 음식점, 쇼핑시설, 사무실 중 어떤 영역을 주로 포함하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되어졌다.

수요적 측면에서의 다른 연구는 Denver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 Annual Report(1991)의 도시 관광객 설문조사를 들 수 있는데, 관광객에게 매력 있는 도시 관광의 영역은 4개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는 특별하고 흥미로운 것으로서 많은 볼거리 및 할거리, 흥미로운 장소, 특별한 휴가 경험을 포함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오락적 요소로서 흥미로운 야간생활, 일류급 쇼핑, 생음악, 극장과 예술, 축제와 이벤트<sup>8)</sup>를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는 음식과 숙박시설로서 일류급 호텔, 세련된 식당, 특별한 음식과 요리, 일류 리조트를 포함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문화적인 흡인 요소와 관광요소로서 잘 알려진 사건, 건축물, 박물관, 미술관, 지역의 풍습과 전통 등을 포함하고 있다.

Burtenshaw et.나 Denver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 Annual Report만큼 광범위하진 않지만, 도시 관광의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 새로운 요소들을 제시한 일부 연구들도 있다. Law(1993)는 박물관, 화랑, 역사적 건물, 극장과 음악회, 명승지, 건축물과 아울러 스포츠를 도시 관광에 부가된 영역으로 분류한 바 있다. 또한 Shaw & Williams(1994)는 도시 관광객의 여행 동기 중에는 문화적인 동기와 사업적인 동기가 대부분이라고 언급하면서, 특히 국제사회간 접촉이 증대되면서 도시가 국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의 장소로 각광받고 있음에 주목하였는데, 이것은 비즈니스에 의한 국제적인 이동이 단순히 비즈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여행객으로 하여금 단기간이기는 하지만 도시 관광객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언급된 도시 관광의 영역을 살펴보면, 대개 관광 매력물, 문화/예술, 축제/이벤트, 스포츠, 국제회의, 음식/쇼핑의 요소들이 주로 언급되어 왔지만, 각 요소들이 도시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그 깊이나 너비가

8) 축제 및 이벤트를 통해 성공적인 도시 관광을 가능케 하고 있는 몇몇 도시들이 있는데, 특히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의 에딘버러시는 제즈 페스티벌, 과학 페스티벌, 국제 페스티벌 등 10여 개의 축제를 개최하면서 1년 동안 축제로 벌어들이는 스코틀랜드 지역의 전체 경제적 수입 중 약 6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Gratton & Taylor, 1995).

부족한 실정이다. 단지 도시에서의 예술 활동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도심지에 활기와 다양성을 가져다주며 중심지를 부흥시킨다거나(Bianchini, 1991), 각종 스포츠대회와 시설들이 스포츠 도시로서의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켜 많은 스포츠 관람 목적의 관광객을 도시로 유인한다(Baade & Dye, 1990)는 등의 단편적인 언급들이 있을 따름이다.

#### IV. 관광목적지로서 도시의 공간적 성격

관광목적지로서의 도시는 그 내부에 다양한 관광요소들-자원과 시설-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러한 도시 관광 요소들은 다양한 관광객층<sup>9)</sup>을 흡수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Shaw & Williams, 1994). 그러므로 관광목적지로서의 도시는 리조트 기반이나 해안형 및 산지형 환경의 관광목적지와는 그 성격이 구별되는 것이 당연하다(Pearce, 1995). 이렇듯 지역관광과는 대별되는 도시의 관광목적지로서의 공간적 성격은 다음의 몇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관광목적지로서의 도시에서는 다양한 관광산업 중에서도 문화·예술 산업이 집적하여 도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중심적인 관광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각 도시에는 뽕삐두 센터, 포럼·레할레엑시스나 런던의 사우스뱅크 또는 바비칸 복합단지 같이 많은 소규모의 상호의존적인 화랑들과 상점들이 들어서 있거나, 좀더 최근의 경향인 멀티플렉스처럼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등 고

급문화와 대중문화의 연합건축이 보편화되고 있다<sup>10)</sup>. 이러한 문화시설의 집적은 도시 관광객에게 의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할리가(Harley street) 현상’으로 명명된 것과 매우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즉 유사한 문화시설의 집적이 관광객의 방문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기보다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고 싶어 하는 시설이 그 집적지 내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하고, 또한 그 집적지 내에 있기 때문에 매우 수준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다(Ashworth, 1995).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이러한 문화·예술 산업이 의외의 경제수익 모델(windfall economic gain model)로 여겨지고 있으며, 특히 일부 도시에서는 지역경제를 위한 주요 부양책으로 여겨지고 있기도 하다(McNulty, 1985)

둘째, 도시의 관광공간은 도시를 관광목적지로 보이게 만드는 다양한 심벌과 이미지들에 의해 매우 상징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징성은 Ashworth & Dietvorst(1995)가 『관광과 공간 변형(Tourism and Spatial Transformation)』에서 언급한 ‘생산자에 의한 상징적 변형’과도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는데, 즉, 생산자에 의한 기호화를 통해 물질적 자원의 변형을 유도하여 지역의 극적 특성을 고유하게 하는 표식기능의 이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실제로 유럽의 어떤 역에서 기차를 타고 파리 북부역(가르 뒤 노르)과 같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단순히 기차 여행을 즐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고양된 “파리에

9)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은 국적, 연령, 성별, 교육, 직업 등 인구학적 특성상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며, 그들은 방문 의도나 체류일수, 방문빈도 등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관광객 범위로 나뉜다.

10) Snedcof(1985)와 Lim(1993)은 스스로 경제적으로 존속할 수 없는 문화시설들은 전체 범위의 외부경제효과를 위해 종종 여러 다기능 도시프로젝트에 포함된다고 언급하였다.



서의 낭만적인 주말”이라는 도시 관광 상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도시 관광의 상징성에 의해 관광객의 흡인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실제 물리적으로 도시 내부를 관광공간화하여 벌어들이는 경제적 편익과 비교해볼 때 매우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브라질의 환경도시 꾸리찌바와 같은 관광목적지는 실제 도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적 자원과 개발수준을 넘어서는 국제적인 인지도-즉, 친환경도시라는 상징성-가 크게 부각되어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도시 관광객이나 도시민에게 있어 도시라는 공간은 관광소비(tourism consumption)의 목적을 위한 공간이다. Mullins(1991)는 도시사회학적 측면에서 관광소비 목적을 위한 도시지역의 성장<sup>11)</sup>을 논리적인 시작점으로 삼으면서, 도시지역 내의 재화와 서비스가 주로 재미·흥미·휴식·레저 등과 같은 욕구에 대한 일시적인 소비기능에 대응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Bell(1974)이 탈산업사회의 이상형적 인성에 대해 논의한 바와 같이, 도시는 전위적인 생활양식을 표현하는 사람들의 거주지로서, 고소득 가구들은 직업에 집중적으로 충실하면서 밤에는 스윙거가 된다. 그들은 도시적 여가에 강한 영향을 끼치는데, 오페라 하우스, 영화관, 화랑, 노천카페, 레스토랑과 박물관 등의 성공은 그들의 여가적 소비활동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도시라는 관광공간은 일시적인 도시 방문객뿐만 아니라 도시에서의 여가를 즐기는 도시민 모두에게 소비적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도시내 관광자원과 시설들은 공간적으로 매우 집적되어 있으면서 도시의 각기 다른 장소들을 매우 이질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즉, 도시 내 집적한 관광자원과 시설의 집적체는 크기나 입지, 소비층 등에 의해 각기 다른 특성을 나타내므로 도시가 상당히 이질적인 공간으로 각인되도록 한다(Shaw & Williams, 1994). 도시 내 이질적인 공간들은 도시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도시 관광객들로 하여금 불거리와 만족할 거리가 더 많다고 느끼게 한다. Pearce(2001)는 도시내부의 이질적인 관광 공간을 6개의 Tourist District로 구분하였는데, 그것은 역사지구(Historic Districts), 인종지구(Ethnic Districts), 종교적으로 신성화된 장소(Sacred Spaces), 재개발지구(Redvelopment Zones),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목적지(Entertainment Destinations), 기능적 관광지구(Functional Tourism Districts)<sup>12)</sup>이다.

## V. 관광목적지로서 도시공간의 개발방향

관광목적지로서의 도시의 공간적 성격에 대한 개념적 고찰은 향후 도시공간에 대해 몇 가지 개발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첫째, 관광목적지로서의 도시는 독특한 장소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관광목적지로서의 도시에는 오페라하우스, 초대형 쇼핑몰, 카지노, 그 밖의 흥행서비스 산업 등과 같은 다양한 관광자원과 시설들이 있지만, 그들은

11) Mullins는 이를 Tourism Urbanization이라 명명함.

12) Getz(1993)의 TBD(Tourism Business District) Model이 이에 속함.

그 도시에만 있는 유일무이한 것이 아니다. 실제 볼티모어, 런던, 맨체스터, 글래스고우, 안트워프, 암스테르담 등 많은 도시들이 서로 강한 모방경향을 보여주고 있다(Jansen-Verbeke & van de Wiel, 1995)<sup>13)</sup>. 이는 유사한 관광자원과 시설들이 이뤄져 있는 타도시들과 도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경쟁관계에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각 도시별로 나름대로의 보완책을 찾게 되는데, 이 때 도시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소적 체험의 개발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 그러나 다양한 문화·예술 및 축제·이벤트 등의 요소는 도시의 지명도를 높이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이 도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제 1의 흡인요소라기보다는 목적지를 결정하고 난 이후 얻는 보너스와 같다는 점(Law, 1993)이나 문화관광 경험의 본질상 문화적 재화는 만들어지기까지 걸린 시간에 비해 급속히 소비된다는 점(Ashworth, 1995)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도시를 독특하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상당한 난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도시 내 개별적인 관광공간의 '장소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그 장소만의 독특성을 이용한 장소-특화관광(place-specific tourism)을 모색하는 것이다<sup>14)</sup>.

둘째, 도시 관광의 공간 개발은 도시 관광의 요소들을 어떻게 '집약화'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세기 후반 보불전쟁에서 프랑스가 패하자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 지은 파리의 사크레뢰르 성당은 비잔틴 양식의 흰색

돔을 가진 독특한 건물이지만, 단독적인 실체로서는 상업적인 가치가 별로 없다. 이 성당 주위에 관광객이 몰리는 이유는 테르트르 광장과 몽마르트 언덕이라는 유명한 관광명소와 아울러 수많은 거리의 화가, 베틀시장, 소규모 화랑 등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기 때문이다. 즉,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관광장소가 관광자원으로 전환되어 도시 관광객들로 하여금 몇 시간의 체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건물들에 둘러싸이거나 문화산업의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Leiper(1990)나 Jansen-Verbeke(1992) 등이 도시 관광의 각 요소들의 공간적 연계성을 분석하고 이들 패턴들을 관광객의 관광활동 범위 내에 위치시켜 관광 매력물 체계(Tourist Attraction System)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연구 분야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러한 '집약화'를 도시 관광의 중요한 전략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도시 관광 요소들의 집약화는 도시 관광객으로 하여금 그 구역이 전문적인 관광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소일 것이라고 사고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가지는 도시 관광 관련시설들의 공간적 집약은 현장의 매력과 아울러 그 지역에서 좀더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도록 하는 성향을 증가시키게 된다.

셋째, 매력물들의 집약만큼 중요한 것이 그 집약간의 연계성이다. 도시 관광객이 매력물들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들간의 공간적 연결성이 개선되어야 하고, 특히 도보권의 확보가 절실하다. 왜냐하면, 사실상 매력물들 사이를 이

13) Harvey(1989)는 이것을 'serial reproduction'이라고 불렀다.

14) 예를 들면, 도시의 광장, 공원, 거리, 블록 등에 대한 고유한 의미 부여가 필요하다. 스페인 광장, 하이드파크, 선셋대로, 브로드웨이 등이 의미하는 장소성을 음미할 필요가 있다.

동하는 도시 관광객의 여행 패턴에서 도보 이동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도시 관광객의 “흥미를 끄는 장소들”의 실제 입지 유형이 최적의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다. 매력물간 이동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갈아타는 교통수단이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접근 자체가 매우 불편한 경우들이 종종 눈에 띈다. 따라서 도시 관광의 매력물들 사이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연결성이 이동시간과 이동거리 및 교통수단 등에서 향상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도시 관광객의 도시에 대한 매력의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해 걸어서 구경할 수 있는 거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 유명한 관광 도시들의 경우 도시 관광객의 도보권 코스가 설정되어 그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예를 들면, Gilbert(1991)는 도시 관광객이 London의 매력을 좀더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London의 관광 매력물들을 모두 18개의 특징적인 도보권에 할당하고 각 도보권에 대한 상세한 설명(기점과 종점, 관련 매력물, 접근 교통수단, 관련 역과 터미널, 도보의 특징 등)을 언급한 바 있다.

넷째, 도시 관광의 특성상 그 개발은 다양한 수요자층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특히 외부로부터의 도시 관광객만큼이나 내부의 도시에 대한 수요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왜냐하면, 도시의 관광 공간은 도시 관광객과 도시민이 함께 공유하기 때문이다(Pearce, 1995). 특히 도시의 공간개발에 대한 의사결정권자들은 도시를 부유한 시민들이 살기 적합한 거주환경으로 조성하는 경향이 있어서 고소득자 집단을 도시로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민의 수요를 고려한 도시의 관광기능은 점차 ‘여가도시’로서의 면

모를 갖추게 되고, 지역관광 공간에 비해 누릴 수 있는 여가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게 된다. 한편, 경제적인 문제로 도시 외부로의 관광활동이 어려운 도시민들의 경우 관광활동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도시에서의 저비용적인 여가 활동을 추구하게 된다. 도시는 ‘복지관광’ 차원에서 이들의 관광 수요 역시 고려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며, 따라서 상업적 이윤을 남기는 사유지의 개발만큼이나 공공 공간의 여가기능 조성이 중요한 개발 과제가 된다.

다섯째, 도시의 관광공간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개발의 조건까지 만족시키는 지속가능한 공간 개발의 마인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환경적인 측면에서 볼 때 관광목적지로서의 도시는 공간 개발시 쾌적성 및 어메니티와 같은 환경 지표들에 대해 많은 고려가 필요한 공간이다. 왜냐하면, 도시 관광객에게는 도시의 각종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환경 자체도 하나의 매력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도시 관광 공간의 개발은 환경보호와 대치되는 많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데 즉, 관광적 토지이용에 따른 건물의 소모, 주차문제,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소음문제 등과 환경보호간의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도시의 친환경적인 공간의 개발은 경제적인 논리와도 상충되는 점이 있는데 즉, 도시 관광객의 관광수준 향상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의 친환경적 상태를 최고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므로 경제적·환경적인 문제와의 조율점을 찾아 지속가능한 도시의 관광공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매우 세부적인 전략의 수립과 적극적인 실행이 요구된다.

## VI. 요약 및 결론

이제까지 지역관광에 비해 그다지 많은 평가를 받지 못해왔던 도시 관광은 그 수요 증가에 의해 점점 일반 대중과 연구자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가고 있는데, 도시 활성화를 비롯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고,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장소 관측의 주요한 도구가 되고 있으며, 또한 도시의 경제적 기반의 세계화에 있어 촉매제가 된다는 점 등에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다.

도시 관광의 실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구성요소들은 공급자적 측면에서보다는 주로 수요자적 측면에서 강조되어 왔다. 도시 관광의 구성요소들은 관광 매력물, 문화/예술, 축제/이벤트, 스포츠, 국제회의, 음식/쇼핑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아직 각 요소들이 도시 관광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관광의 중요성이나 구성요소의 이해에 있어 지역관광과 대별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관광목적지로서의 도시의 공간적 성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데, 이는 다음의 몇 가지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관광목적지로서의 도시에서는 다양한 관광산업 중에서도 문화·예술 산업이 집적하여 도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중심적인 관광요소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 산업은 의외의 경제수익모델(windfall economic gain model)로 여겨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도시경제의 주요 부양책이 되고 있다. 둘째, 도시의 관광공간은 도시를 관광목적지로 보이게 만드는 다양한 심벌과 이미지들에 의해 매우 상징화된 특성을 가

지고 있다. 때때로 이러한 상징화된 도시의 관광공간은 실제 도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과 개발 수준을 넘어서는 인지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셋째, 도시 관광객이나 도시민 모두에게 있어 도시라는 공간은 관광소비(tourism consumption)의 목적을 위한 공간이 된다. 이러한 관점은 주로 도시사회학적인 관점으로서 도시지역의 성장이 관광소비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적인 시작점을 가지고 있다. 넷째, 도시 내 관광자원과 시설들은 공간적으로 매우 집적되어 있으면서도 도시의 각기 다른 장소들을 매우 이질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즉, 도시 내 집적한 관광자원과 시설의 집적체는 규모나 입지, 소비자계층 등에 있어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매우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이질적인 공간들은 도시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들어 도시 관광객들로 하여금 불거리와 만족할 거리가 더 많다고 느끼게 한다.

관광목적지로서의 도시의 공간적 성격에 대한 이러한 일련의 개념적 고찰은 향후 도시공간의 개발에 있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첫째, 관광목적지로서의 도시는 독특한 장소적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 왜냐하면, 각 도시들은 유사한 관광자원과 시설들로 이뤄져 있어 상호 강한 모방 및 경쟁관계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장소마다 가지고 있는 '장소성'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도시 관광의 공간 개발은 도시 관광의 요소들을 어떻게 '집락화'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 관광 요소들의 집락화는 도시 관광객으로 하여금 그 구역이 전문적인 관광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소일 것이라

고 사고하게 만들고, 그 지역에서 좀더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도록 하는 성향을 증가시키게 된다. 셋째, 매력물들의 집락만큼 중요한 것이 그 집락간의 연계성이다. 특히 도시 관광객이 매력물들에 효율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보권의 확보가 절실하다. 왜냐하면, 도시 관광객의 도시에 대한 매력의 리얼리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걸어서 구경할 수 있는 거리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명한 관광도시들의 경우 매력적인 도보권 코스가 개발된 사례들이 많다. 넷째, 도시 관광의 특성상 그 개발은 다양한 수요계층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특히 외부로부터의 도시 관광객만큼이나 내부의 도시민에 대한 수요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다. 도시는 여가의 질적 수준이 높은 사회적 계층뿐만 아니라 '복지관광' 차원에서 경제적 이유로 저비용적인 여가활동을 추구하는 도시 저소득층에 대한 여가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따라서 공공 공간의 여가 기능이 개발의 중요한 과제가 된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관광공간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인 개발의 조건까지 만족시키는 지속가능한 공간 개발의 마인드를 가지고 세부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왜냐하면 관광목적지로서의 도시에서는 각종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쾌적한 도시환경 자체도 하나의 매력물로 작용하여 도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도외시되어왔던 관광목적지로서의 도시라는 공간에 대한 개념적 차원의 고찰을 시도한 것으로서, 도시공간에 대한 기존의 '관광학' 및 '도시학'의 연구 동향들을 되짚어보고 이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 것

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개념적인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도시 공간만의 독특한 관광특성을 살리는 '기능적 특화 공간으로서의 도시'를 연구의 대상이자 목적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

#### 참고문헌

- 구연석, 2000, "국제회의의 관광이벤트를 통한 도시 관광산업 진흥방안", 『도시문제』, 35(8) : 44-56
- 김계섭, 2000, "우리나라 도시의 국제관광상품 개발전략", 『도시문제』, 35(8) : 21-34
- 김민수, 2000, 『도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장소마케팅전략: 서울시 북창동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서울대 학위논문
- 이종규, 1997, 『서울 관광마케팅 지원전략』,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종규, 2001, 『서울시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최승담, 2000, "문화관광 활성화를 통한 도시국제관광 기반 강화 전략", 『도시문제』, 35(8) : 35-43
- Ashworth, G. J., 1989, "Urban Tourism : an imbalance in attention", in C.P. Voooper (eds) *Progress in Tourism, Recreation and Hospitality Management Volume 1*, Belhaven: London: 33-54
- Ashworth, G. J., 1995, "Managing the Cultural Touris", in Ashworth, G. J., Dietvorst, A. (eds) *Tourism and Spatial Transformation*. CAB International
- Baade, R. A., Dye, R. E., 1990, "The impact of Stadiums and professional sport on metropolitan area development". *Growth and Change*, 21(2) : 1-14
- Bianchini, F., 1991, "Urban renaissance? The arts and the urban regeneration process", in S. MacGregor and B. Pimlott (eds) *Tackling the Inner Cities: The 1980s Reviewed, Prospects for the 1990s*. Oxford : Clarendon Press
- Bell, D., 1974,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London : Heinemann
- Burtenshaw, D., Bateman, M., Ashworth, G., 1991, *The European City : a Western Perspectives*, London :

- David Fulton
- Claval, P., 1995, "The Impact of Tourism on the Restructuring of European Space", in Montanari, A. and Williams, A (eds) *European Tourism: regions, spaces and restructuring*. J. Wiley
- Denver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 Annual Report, 1991, "Why people visit cities?", in Law, C. M (eds) *Urban Tourism: Attracting Visitors to Large Cities*. London : Mansell
- Friedman, J., 1986, "The World City Hypothesis", *Development and Change*, 17(1)
- Getz, D., 1993, "Planning for Tourism Business Districts". *Annals of Tourism Research*, 20 : 583-600.
- Gilbert, B., 1991, *The Green London Way*, Lawrence & Wishart
- Gratton, C., Taylor, P. D., 1995, "Impacts of Festival Events : a Case-study of Edinburgh", in Ashworth, G. J., Dietvorst, A. (eds) *Tourism and Spatial Transformation*. CAB International
- Green, H., Hunter, C., 1992,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f tourism development", in P. Johnson and B. Thomas (eds) *Perspectives on Tourism Policy*. London : Mansell
- Hoyle, B., Pinder, D. and Husain, M., 1988, "Revitalising the Waterfront". *International Dimensions of the Docklands Redevelopment*. Belhaven Press, London
- Jansen-Verbeke, M., 1986, "Inner-city tourism : Resources, Tourists and Promoter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3(1) : 79-100
- Jansen-Verbeke, M., van de Wiel. E., 1995, "Tourism Planning in Urban Revitalization Projects: Lesson from the Amsterdam Waterfront Development", in Ashworth, G. J., Dietvorst, A. (eds) *Tourism and Spatial Transformation*. CAB International
- Law, C. M., 1992, "Urban tourism and its contribution to urban regeneration". *Urban Studies*. 29 : 599-618
- Law, C. M., 1993, *Urban Tourism : Attracting Visitors to Large Cities*, London : Mansell.
- Leiper, N., 1990, "Tourist attraction systems". *Annals of Tourism Research*, 17: 367-384
- Lim, H., 1993, "Cultural strategies for revitalising the city: review and evaluation". *Regional Studies*, 27(6) : 589-595
- McNulty, R., 1985, "Revitalizing industrial cities through cultural tourism".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Studies*, 25:225-228
- Mullins, P., 1991, "Tourism Urbaniz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and Regional Research*, 15(3): 326-342.
- Owen, C., 1990, "Tourism and urban regeneration". *Cities*, 194-201
- Page, S. J., 1995, *Urban Tourism*, London : Routledge
- Pearce, D. G., 1995, *Tourism Today : A Geographical Analysis*, Harlow : Longman
- Pearce, D. G., 2001, "An Integrative Framework for Urban Tourism Resear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28(4) : 926-946
- Shachar, A., 1995, "Metropolitan Areas : Economic Globalization and Urban Tourism", in Montanari, A. and Williams, A (eds) *European Tourism: regions, spaces and restructuring*. J. Wiley
- Shaw, G., Williams, A., 1994, *Critical Issues in Tourism: A Geographical Perspective*. Oxford : Blackwell
- Snedcof, H., 1985, "Cultural Facilities in Multi-use Developments", *Urban Land*. Washington
- van der Borg, J., 1994, "Demand for city tourism in Europe", *Annals of Tourism Research*, 21:832-833